소리주보 QR코드

소리주보

주님성탄대축일

2019. 12. 25.(가해) 제2193호

사진 / 양병주 분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요한 1,9)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이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마다 성탄절을 지내며 구세주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 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 가까이에 성탄을 지내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교회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우리 신앙의 보화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구원 신비의 시작입니다. 구세주께서 위대한 왕이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남들을 억누르며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 더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춥고 어두운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테러와 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음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 가는 어린아이들도 아직 많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해 자유세계를 찾아오는 난민은 넘쳐 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들은 난민의 어려움을 외면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간의 혐오와 증오의 골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은 불안하고, 경제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무겁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는 성탄절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고 따스하게 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이 이 사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밝고 따스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안에 빛을 밝힙시다. 그 빛으로 세상을 더욱 밝고 따스하게 밝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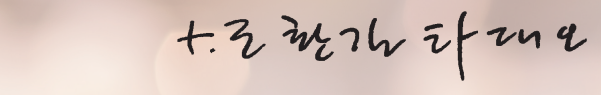
우리 교구는 2018년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아, 초대 교구장이셨던 안세화 드망즈 주교님께서 우리 교구를 '루르드의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했던 그 정신으로, 그리고 루르드의 성모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대로 삼 년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첫해를 '회개의 해'로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용서와 화해의 해'를 살았으며, 2020년 새해에는 '치유의 해'를 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특별 전교의 달' 선포가 있었고, 우리 교구는 '냉담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교우들이 노력하고 활동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계속 이러한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는 2020년 새해를 '치유의 해'로 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교구민들이 대내외적으로 입은 상처에 대해 성모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가톨릭 신자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선물이 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처 난 현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먼저 노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좀 더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는 우리가 특별히 성체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성체를 자주 영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힘으로 먼저 나 자신이 치유되고, 치유받은 내가 나아가 다른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크리스마스의 기적

1950년 12월 22일 밤 흥남부두에는 살을 에는 한겨울의 바닷바람 속에 부두를 가득 메운 피난민들이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자 수송을 위해 항구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아호. 정원 60명에 이미 47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남은 자리라고 해야 고작 13명분 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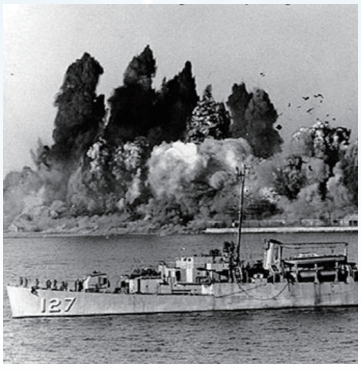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워보자!"

부두에 떼를 지어 있는 피난민들의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레너드 라루 선장과 승조원들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배에 실려 있던 무기와 물자를 모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되도록 많이 승선시켜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피난민들은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수품을 싣기로 했던 화물칸에는 피난민들로 가득했고, 갑판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피난민들도 자신의 짐을 바다에 버리고 많은 동포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6시간의 긴 탑승 끝에 정원의 230배나 되는 무려 14,000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마침내 흥남항을 출발했습니다. 바다에 잠긴 수천 개의 기뢰가 언제 터질지도 모를 상황이었지만 배는 멈추지 않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공포 속에서 목숨 건 항해는 3일간 계속되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5명의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이 싹튼 것입니다.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14,005명이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극적으로 구출한 라루 선장은 그 후 4년 뒤 1954년에 성 베네딕도 수도회에 입회하여 마리너스 수사로서 수도생활에 정진하다가 2001년 10월 14일 87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마리너스 수사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옵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성탄 기도

오, 주님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게 타향에서 태어난 작고 무력한 아이로 오십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자기 땅에 오시어 이방인으로 사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도시의 성벽 밖에서 범죄자로 죽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벗들에게 오해받으시고
하느님에게마저 버림받은 채로 말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저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 세상을 내 집 삼으려 하며,
저를 괴롭히는 그 자그마한 소외감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느끼는 소속감보다
오히려 이따금씩 갖는 집을 잃은 듯한 막막한 심정이
저를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늑한 내 집일까요? 낯선 타관일까요?
반겨 주는 친구들 틈일까요? 미지의 이방인들 틈에서일까요?
행복감 속에서일까요? 외로움 속에서일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일에서
제 자신이 굳이 달아나지 않도록 이끄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그런 심정이 들 때마다 실은 감사의 기회요 주님을 더 꼭 끌어안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더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주 예수님,
오셔서 제 심령 가장 비참한 곳에 저와 함께 머무소서.
여기가 바로 주님의 구유가 있을 곳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곳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소서, 오소서.

아멘.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1932~1996) : 신부, 작가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 **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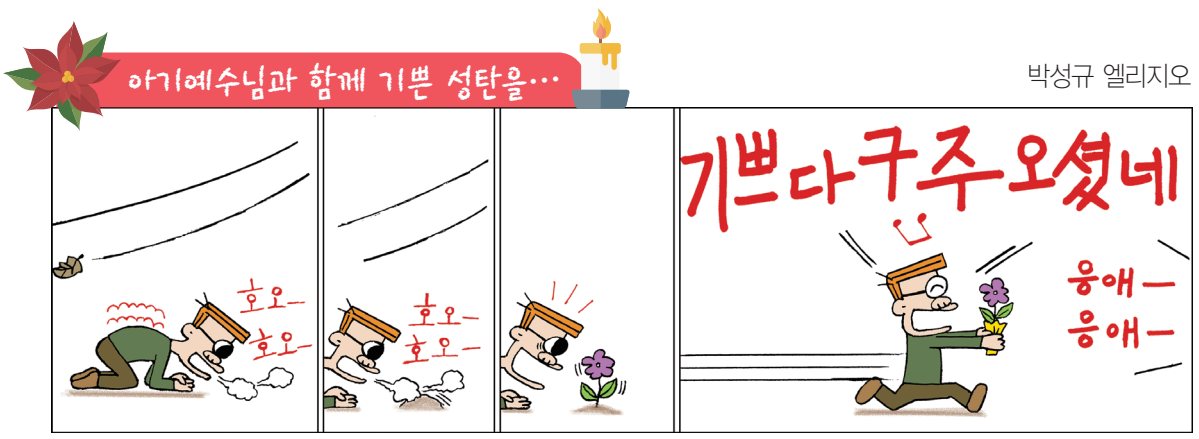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미 사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8일(토) 11:00 한티피정의집	–	–

성소 |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3박 4일: 1.9~12 / 2.7~10(45세 미만)
8박 9일: 1.28~2.5(신학생) / 2.12~20
40일: 4.14~5.22 / 6.16~7.25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제37차 8박 9일 신·구약 성경 통독 피정

일시: 1.11(토) 17:00~19(일) 15:00
장소: 성령강림사도수녀회 루하피정센터
문의: (010)3758-3572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1.13~15 / 1.17~19(한라산)
2.1~3 / 2.7~9(한라산)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2020년 살레시오수도회 겨울 성소 대피정

일시: 1.31(금)~2.2(일)
장소: 돈보스코청소년센터
대상: 예비 고3, 성인(만 33세 이하)
문의: (010)5159-3949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 치유

일시: 3월부터 10주간
시간: 매주 화 10:00~12:30
매주 금 19:00~21:30
대상: 30대~6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서원, 256-4592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9:00 / 목 14:00
대경CEO합창단: 화 19:30~21:0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660-5556

가톨릭상지대 2020학년도 정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원서접수: 12.30(월)~1.13(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3
http://ipsi.csj.ac.kr

2020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접수: 1.2(목) 9:00 / 선착순 300명
일정: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대상: 초등부, 중·고등부(각 4차)
문의: (062)373-0942 / (010)7412-0942

골롬반 성인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

일시: 4.8(수)~14(화)
장소: 제주 강정마을 등
대상: 만 19세~만 40세 / 선착순 10명
비용: 25만원 / 마감: 2.28(금)
신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7-2705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9개국 14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구원모
이태윤(미카엘) · 김진선 · 이혜미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전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대표전화 | 053)670-6000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 (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의학박사 | 최희만(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복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곽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Caritas
한국교회사회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수익사업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논공)성요셉요양병원장례식장 053-617-3644
☎ 053-650-4444, 053-657-4444
우리 장례식장 수익금은
전액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입니다.
전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논공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70% 할인

행사 | 모임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1.15(수)~17(금)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고3·대학·일반: 1.20(월)~22(수)
장소: 한티피정의집
(참가 학년은 2020학년도 기준,
등록된 예비 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사무실 / 마감: 1.5(일)

교육 | 모집

1월 가나강좌
일시: 1.19(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데레사관 3층 강당
참가비: 1인 2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사무실 / 마감: 1.3(금)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20년 학생 주보
(무지개, 새하늘새땅) 기자단 모집
대상: 2020년도 초4~고2 / 마감: 1.12
서류: 지원서,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http://www.jesusclub.or.kr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신입생 모집
접수: 12.24~1.6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대구가톨릭대 2020 전기2차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2.24(화)~1.6(월)
모집: 일반, 교육, 특수 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원 음악학과 전기 2차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24(화)~1.6(월)
지원자격: 학부전공과 무관
전공: 예술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 850-3803

대구가톨릭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원서접수: 12.26(목)~31(화)
입학상담: 850-2580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 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태극권, 제대꽃꽂이,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레벨별·왕초보·원어민영어,
미술심리2급자격과정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서류: 교적증명서
문의: (010)3463-5191 / (010)3787-7070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봉사자 모집
대상: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수자
문의: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옴,
253-1401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12월_이경희(엘리아) 수녀
1월_장숙희(루시아) 수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채용 | 안내

계산성당 주일미사 시간 변경 안내
시행: 1.1(수)부터
토요일: 16:00 / 19:30
일요일: 6:30 / 8:00 / 9:30 / 11:00
17:00 / 18:30 / 20:00 / 21:3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백합식품 메주 판매
수녀들이 직접 만든 순수 우리 것
국산콩 100% 메주를 판매합니다.
문의: 자인본사, 857-2037
대구판매소, 257-1771
서울판매소, (02)2202-8392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Yi Sang Doe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꼬)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영대+영남 결혼♥정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대표 이 정 희(안젤라)
T. 817-9990 M. 010-9522-2787
경산 영남대학교 정문 앞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의학박사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 중 원(소시모)
안과전문의 장 주 현(비비안나)·이 무 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4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